

담배

우선 저의 생각부터 말하면 저는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피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입니다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기쁨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은 공동생활을 하는 민주시민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피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옆사람에게도 대단히 나쁘다고 합니다. TV와 신문에서 본 담배에 관한 기사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암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발병율이 32배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담배를 피우는 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사를 볼때마다 조금 무서워집니다. 앞서서도 잠시 이야기 했습니다만, 간접흡연에 대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루 30개피이상 담배를 피우는 남편과 생활하고 있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부인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배이상이나 높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한편, 저는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느정도 보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의 한국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여성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웁니다.

제가 볼때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공공의 장소에서는 서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지요. 살기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저도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줄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목표는 금연입니다.